

여/성/주/의 98년 겨울방학 세미나

I. 여성운동, 여성학의 의미

“당신은 왜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여성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비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이 운동은 그 비거운을 조금은 가볍게 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구축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운동의 목적은 이미 존재하는 남성중심적 세계에서 그들의 권력을 나눠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성운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여성학에서 다뤄지는 몇가지 주제들

여성학에서 다뤄지는 수많은 주제들 중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좀더 일상과 가깝다고 느껴지는 주제들(사실, 여성학에서 다뤄지는 것 중 일상과 유리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을 몇가지 선택해 보았다.

1. 낭만적 사랑
2. 육체+욕망
3. 성폭력
4. 성정치

III. 새로 생각해보기

-긍정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여성성, 여성문화, 여성적 언어

여성성, 남성성... 언제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며, 명확하게 언어화 되어있지도 않다. 앞의 세미나를 통해서 수 없이 논의되었을 주제들이다. 이제 생각들을 정리해보자. 전에 갖고 있던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생각과 달라진 점이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 이야기 해보자.

여성문화라..... 뭐가 있을까? 잘 떠오르지 않는다. 수다정도? 여성의 문화란 현재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이런거 있으니까 문화로 인정해 달라’가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가치를 갖는가이며, 그러한 가치들을 기초로 다른 가능성들을 찾아가고자 함이다.